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 미 증시, 산타 랠리 기대감 속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상승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4일(수) 미 증시는 성탄절 휴일을 앞두고 오전 장만 열리며 한산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3분기 미 GDP 성장,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 속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0.60%, S&P500 +0.32%, 나스닥 +0.22%)

S&P500 기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미 증시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 나가며 올해 들어 38번째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 연휴 직전 발표된 3분기 미국의 GDP가 호조세(확정치 4.3% vs 컨센 3.2%)를 보였음에도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이 위험자산 랠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한편, 이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감소(12월 20일 기준, 21.4만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건 감소)했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192.3만 건으로 전주 대비 3.8만 명 증가)하며 급격한 냉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

매크로 지표 불확실성, AI 버블 우려 등 월 초중반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요인들이 잠잠해진 가운데 시장은 점차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흐름. 특히, 최근 미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AI주 중심의 IT 랠리에서 벗어나 IT 외 종목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12월 이후 수익률 기준 금융 +4.8%, 소재 +3.3%, 경기소비재 +3.3%, 산업재 +2.7%, IT +1.1%, 커뮤니케이션 -0.6% 에너지 -0.8% 순). AI 쏠림 현상이 일부 해소되는 가운데 업종 로테이션 진행되며 완만한 미 증시의 연말 랠리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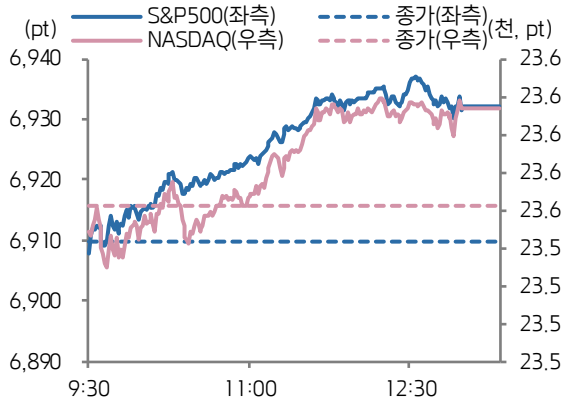
24일(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미 증시의 빅테크 상승을 반영하며 상승 출발. 이후 오전 중 정부의 강도 높은 환율 안정화 대책 발표 속 달러/원 환율이 20원 이상 급락했음에도 장 후반 갈수록 휴일을 앞두고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결과 양 지수는 전강후약 장세로 마감 (코스피 -0.21%, 코스닥 -0.47%).

금일 국내 증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호조 속 마이크론 주가(+3.8%) 사상 최고치 경신, 정부의 환율 안정화 정책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

한편, 지난 24일 외환당국은 고환율 원인으로 지목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 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 발표(서학 개미 국내 투자 촉진, 해외 자회사 배당 국내 유입 등). 해당 소식 발표된 이후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급락(2022년 11월 11일 이후 일간 기준 최대 폭 하락)하며 현재 1,450원 레벨대까지 하락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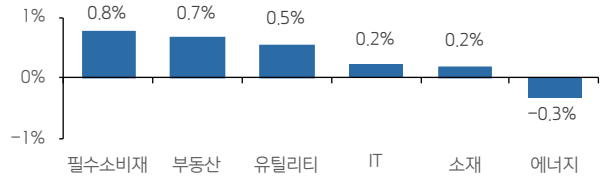
최근 상방 압력이 높았던 환율 레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될 경우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락한 원달러 환율 레벨이 금일에도 현재 레벨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지에 주목해볼 필요. 그 외에 금일(26일)은 국내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 기준일로 과세 회피성 매물 출회, 배당주 투자 막차 수요 등 수급 공방전 확대되며 증시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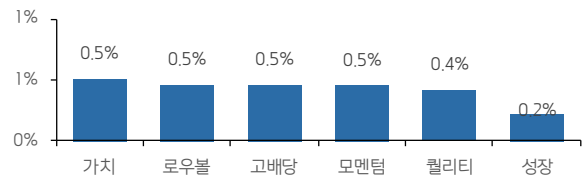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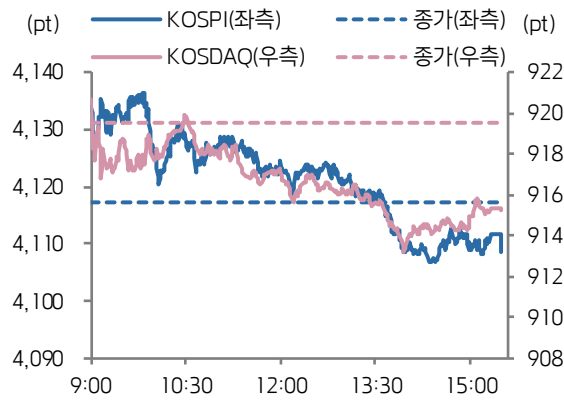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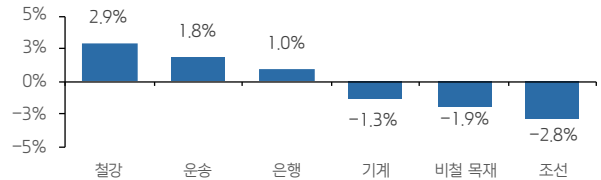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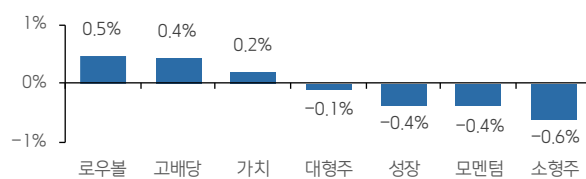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73.81	+0.53%	+9.34%	GM	82.88	+0.16%	+55.58%
마이크로소프트	488.02	+0.24%	+15.78%	일라이릴리	1,076.98	+0.5%	+39.51%
알파벳	314.09	-0.08%	+65.92%	월마트	111.61	+0.64%	+23.53%
메타	667.55	+0.39%	+14.01%	JP모건	329.17	+0.99%	+37.32%
아마존	232.38	+0.1%	+5.92%	엑손모빌	119.22	-0.17%	+10.83%
테슬라	485.40	-0.03%	+20.2%	세브론	150.50	-0.01%	+3.91%
엔비디아	188.61	-0.32%	+40.45%	제너럴일렉트릭	111.61	+0.6%	+23.5%
브로드컴	350.22	+0.26%	+51.06%	캐터필러	583.76	+0.23%	+60.92%
AMD	215.04	+0.07%	+78.03%	보잉	218.16	+0.6%	+23.25%
마이크론	286.68	+3.77%	+240.64%	넥스트에라	80.45	+0.8%	+1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108.62	-0.21%	+71.23%	USD/KRW	1,445.70	-2.38%	-1.81%	
코스피200	584.21	-0.07%	+83.82%	달러 지수	97.98	+0.03%	-9.69%	
코스닥	915.20	-0.47%	+34.95%	EUR/USD	1.18	+0.05%	+13.82%	
코스닥150	1,530.15	-0.7%	+35.44%	USD/CNH	7.00	-0.09%	-4.59%	
S&P500	6,932.05	+0.32%	+17.86%	USD/JPY	155.73	-0.13%	-0.94%	
NASDAQ	23,613.31	+0.22%	+22.28%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8,731.16	+0.6%	+14.54%	국고채 3년	2.943	-1.7bp	+34.8bp	
VIX	13.47	-3.79%	-22.36%	국고채 10년	3.347	-3bp	+47.6bp	
러셀2000	2,548.08	+0.27%	+14.26%	미국 국채 2년	3.501	+0bp	-74bp	
필라. 반도체	7,204.37	+0.28%	+44.67%	미국 국채 10년	4.134	+0bp	-43.6bp	
다우 운송	17,669.42	+0.19%	+11.16%	미국 국채 30년	4.794	+0bp	+1.3bp	
상해종합	3,959.62	+0.47%	+18.14%	독일 국채 10년	2.862	+0bp	+49.5bp	
항생 H	8,915.12	+0.01%	+22.29%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5,408.70	-0.14%	+9.3%	WTI	58.35	-0.05%	-13.6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2.24	-0.22%	-16.61%
Eurostoxx50	5,746.24	-0.05%	+17.37%	금	4,502.80	-0.06%	+61.33%	
MSCI 전세계 지수	1,022.58	+0.24%	+21.54%	은	71.03	+0.77%	+142.91%	
MSCI DM 지수	4,474.20	+0.23%	+20.67%	구리	549.85	+0.41%	+36.56%	
MSCI EM 지수	1,392.07	+0.36%	+29.44%	BDI	1,877.00	-0.64%	+88.26%	
MSCI 한국 ETF	94.60	+2.05%	+85.89%	옥수수	451.00	+0.78%	-0.93%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21.75	+0.92%	-14.99%
비트코인	87,877.04	+0.28%	-6.23%	대두	1,076.50	+1.2%	+4.09%	
이더리움	2,946.04	-0.1%	-11.97%	커피	345.15	-0.52%	+23.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2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